
碩士學位論文

문화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 연구
(How to Impro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濟州大學校 大學院

英語 英文學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夫 香 順

1997年 12月

문화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 연구
(How to Impro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指導教授 邊 明 燮

夫 香 順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12月



夫香順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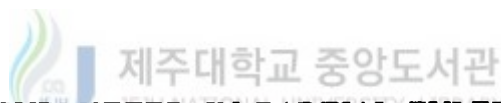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7年 12月

How to Impro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Bu Hyang - soon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Myung - Sup)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7. 12.

목 차

I. 서론	1
II. 문화와 의사소통	4
1. 문화의 개념	4
2. 문화와 의사소통간의 관계	8
III. 한·영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14
1. 언어적 측면에서의 차이	14
2. 비언어적 측면에서의 차이	24
IV. 한·영 가치체계의 차이	34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36
2. 수평사회와 수직사회	41
3. 실용주의와 형식주의	45
4. 이성주의와 감정주의	47
V. 문화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	51
1. 용어의 정의	52
2. 문화화 과정	59
3. 의사소통상의 장애물	62
4. 경험적 접근 방법	64
VI.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5
부 록	87

I. 서론

외국어 습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으며, 완전한 의사소통은 "Language does not operate in a vacuum, but in a real social context, and there are social rules that a learner has to master concurrently with grammatical rules." (Tyacke, et al., 1980:60)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능력 (linguistic knowledge)외에도 사회·문화적 배경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으로 인해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외국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오해와 함께 당혹감을 겪게 되면서 문화 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해외 어디를 방문하든지, 우리를 방문한 외국인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대하게 된다. 세계 사람들과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해소하고, 문화적인 충격 (culture shock)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intercultural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말한다 (MacGregor, 1995). 세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의 증가, 운송·통신수단의 발달과 경제의 세계화, 이민 패턴의 변화 등의 중요한 변화들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간의 접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Marshall McLuhan이 주창한 지구촌 시대 (global village)가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Samovar & Porter, 1994). 이러한

변화들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고 intercultural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는 주된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은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상호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예수, 부처와 같은 성현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 셰익스피어 같은 극작가들이 이미 'the importance of speaking the other man's language and adapting our communicative techniques to the audience background' (Hart II, 1996)라고 역설한 것처럼 그 기원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학문의 분야로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Intercultural communication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대에 Hopi와 Navajo Indian의 접촉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념적 틀 (conceptual framework)을 정립한 Hall (1959, 1966, 1976)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 Gudykunst (1983) 등의 학자에 의해서 성숙된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Leeds-Hurwitz (1990)가 "The young field still has little history written about it."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직 많은 연구물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최근 외국어 교육, 국제 교류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연구의 목적은 이질 집단의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완전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이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모국어 화자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기 마련인 오해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소통과 문화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한국의 문화와 영어권 문화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며,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제 I 장에서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논문의 취지를 밝혔다. 제 II 장에서는 의사소통과 문화와의 관계를 설명하여 외국어 학습에 문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문헌을 통해 밝히고, 제 III 장에서는 한·영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제 IV 장에서는 대학생들의 문화 관찰 내용을 중심으로 한·영 가치체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V 장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경험적 측면의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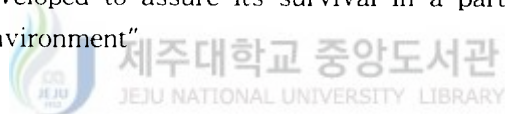
II. 문화와 의사소통

1. 문화 (culture)의 개념

문화는 일반 사람들의 의식을 통해서 느릿하게 스며 나오는 것이라는 주장 (최현욱, 1992)처럼 문화 그 자체의 난해성 때문에 문화를 정의 내리는 시각은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Hoopes & Pusch (1979a:3)는 문화를 인간의 생존과 관련한 삶의 총체적 양식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Culture is the sum total ways of living; including values, beliefs, esthetics, standards, linguistic expression, patterns of thinking, behavioral norms, and styles of communication which a group of people has developed to assure its survival in a particular physical and human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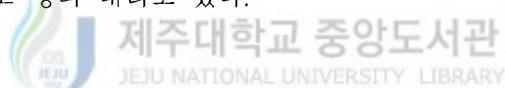


문화를 인간 삶의 모든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이 정의에서는 문화를 두 계층으로 구분 짓고 있다. 하나는 "large C" 문화로서 음악, 연극, 예술, 의상과 같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문화이며, 또다른 하나는 "small C" 문화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how people think and act),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what they say and how they say it) 등에 관한 것으로서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이 두 계층의 문화는 "iceberg" 모델로 흔히 설명되고 있다. 우리가 물의 표면 위에서 볼 수 있는 iceberg의 일부는 "large C"를 나타내는데 이는 언어, 관습, 의상, 음식 등을

일컫는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양상들은 상당히 가시적이기 때문에 구분하고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수면 밑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iceberg의 일부인 "small C"는 attitudes, values, beliefs, communication styles 등을 나타낸다. 문화의 이런 양상들은 우리들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영향력이며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와 비슷한 설명으로, 문화를 달에 비유하여 "Most of what is important in a culture is below the surface. It is like the moon - we observe the front, which appears flat and one-dimensional, but there is another side and dimension that we cannot see." (Samovar & Porter, 1994:13)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즉, 우리가 볼 수 없는 달의 이면에 해당하는 것은 value, ethics, morals, work and leisure, attitude와 같은 문화의 심층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화의 외양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이 심층구조는 남아있어 문화를 지탱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Brown (1994:163)은 문화를 그 그룹 내의 사람들을 함께 묶는 "접착제"와 같은 중요한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Culture is a way of life. Culture is the context within which we exist, think, feel, and relate to others. It is the "glue" that binds a group of people together."

즉,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방식, 사고방식 등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다. 또한 그의 설명에 따르면, 문화라는 것은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을 성격 짓는 것으로서, ideas, customs, skills, arts, tools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문화는 그 요소들의 총합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한다.

Larson & Smalley에 따르면 문화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안내하는 "청사진 (blueprint)"이다 (Brown, 1994:163-64에서 인용).

"Culture is a blueprint that guides the behavior of people in a community and is incubated in family life. It governs our behavior in groups, makes us sensitive to matters of status, and helps us know what others expect of us and what will happen if we do not live up to their expectations. Culture helps us to know how far we can go as individuals and what our responsibility is to the group. Different cultures are the underlying structures which make Round community round and Square community square."

Samovar & Porter (1994:11)는 문화가 세대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습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We define culture as the deposit of knowledge, experience, beliefs, values, attitudes, meanings, hierarchies, religion, notions of time, roles, spatial relations, concepts of the universe, and material object and possessions acquired by a group of people in the course of generations through individuals and group striving."

즉, 탄생의 순간부터 어린아이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특별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문화 내의 개념들을 습득하게 된다.

Rivers (1981:316)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 습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The culture of a people ... refers to all aspects of shared life in a community. Children growing up in a social group learn ways of doing things, ways of expressing themselves, ways of looking at things, what things they should value and what things they should despise or avoid, what is expected of them and what they may expect of others. These attitudes, reactions, and unspoken assumptions become part of their way of life without their being conscious of them."

Collier & Thomas (1988:99-122)는 "Culture is defined as a historically transmitted system of symbols, meanings, and norms."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문화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그 구성원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만의 상징체계, 의미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을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과 구분시키는 기준 (norm)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해져 내려온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문화의 특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는 습득되는 것이다. 즉,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으로, 유아 때부터 구성원들은 행동 유형과 사고 방식을 배우게 되며, 상호작용, 관찰, 모방 등의 습득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문화는 역사성을 지니며, 동적인 것이다. 문화는 세대를 거쳐 지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결코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의 발명, 다른 문화의 유입 등으로 문화의 모습은 변화한다.

셋째, 문화의 각 요소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화는 어느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You touched a culture in one place and everything else is affected."라고 말한 Hall (1976)의

설명에서처럼 그 각각은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문화는 민족중심주의적이다. 문화는 그 그룹의 구성원들의 삶의 반영이므로 모든 문화의 구성원들은 자국의 문화를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종합해보면, 문화란 역사적으로 창조되어서 계승되고 학습되어 내려오는 한 공동체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행동체계이며, 다른 공동체와 구별시켜주는 그들만의 속성을 지닌다.

2. 문화와 의사소통간의 관계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은 언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지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은 Chomsky의 언어능력 (linguistic competence) 과 언어수행 (linguistic performance)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언어학적인 지식을 강조한 Hymes¹⁾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여기에 Trim이 'strategies & skills'를 첨가하여 'communicative potential'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홍수, 1980).

그렇다면 의사소통이란 무엇이며 의사소통과 문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창수 (1996)는 의사소통이란 '한 대화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그

1) Hymes(1972:53)에 의하면 의사전달능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theor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must deal with notions of the speech community, speech situation, speech event, speech act, fluent speaker, components of speech events, functions of speech, etc."

예를 들어 "I'm cold"라는 문장이 상황에 따라서는 스웨터를 달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음을 아는 것이 곧 의사전달능력이라는 것이다. (황식모, 1985:235-36)

메시지를 추론해 내는 능력'이며,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언어적인 지식 외에 사회, 문화적인 가치와 주변 세계에 대한 지식의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Samovar & Porter (1994:7)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원하며 이는 의사소통이라는 행위에 의해 충족된다고 전제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Communication is defined as that which happens whenever someone responds to the behavior or the residue of the behavior of another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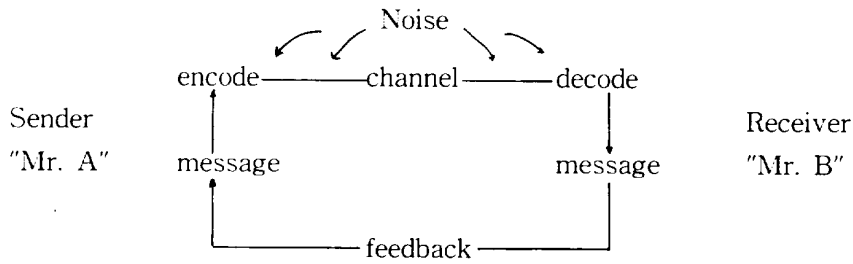
의사소통시의 메시지는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식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누군가 우리의 행위를 받아들여서 의미를 부여할 때, 의사소통은 그 행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은 간에 발생한다. 또한, 의사소통이란 의도된 행위가 의도된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이 응대하고 그 행위에 영향을 받을 때에만 완성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언어 행위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무의식적, 의도적, 무의도적, 언어적, 비언어적인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Hoopes & Pusch (1979b:154)는 가급적 의미 손실이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ommunication is an exchange of meaning of information and ideas. The basic aim in communication is to transmit a message from a sender to a receiver with the least possible loss of meaning."

의사소통 과정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usch, 1979:30).

【도표 1. 의사소통과정】



A가 B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때 사용되는 코드는 언어적인 것 (linguistic code) - verbal or written - 과, 그림이나 상징체계 또는 제스처, 침묵 등이 모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꽃을 선물한다면 이는 "I love you" 혹은 "I really appreciate it." 등의 의미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호화하여 전달된 메시지는 B에 의해서 의미가 해석되고 반응, 즉 feedback을 보인다. 대부분의 feedback이 사회의 문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 - 예를 들어 "미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머리를 끄덕이는 행위는 무엇을 뜻하는가?", "동성끼리 팔짱을 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등 - 이기 때문에 intercultural communication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혼란을 가져오면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의미 전달 과정에서 "noise"에 해당하는 것은 "customary behaviors", "cultural assumptions and values", "patterns of thinking", "communicative style" 등의 변수로서 feedback의 배경이 된다. 즉, 메시지는 문화적 배경을 근간으로 의미가 전달됨을 알 수 있다.

Gudykunst (1983:141)는 이러한 문화와 의사소통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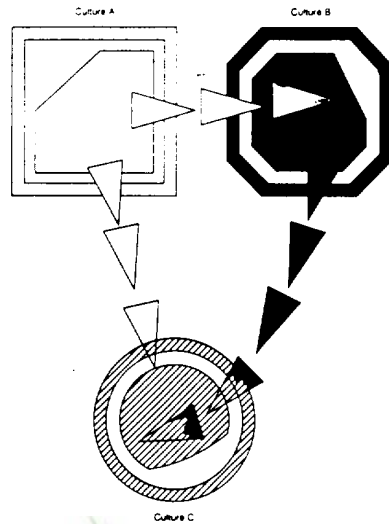
“Culture is directly and indirectly the product of communication. Were it not for the capacity of human systems to create and use the symbolic language, the creation of common symbols and meaning would be impossible.... culture is the product of communication and human communication processes and outcomes are the result of culture.”

문화와 의사소통간의 관계는 상호적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 말하는 방식, 사고방식 등은 우리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그러한 것들은 문화를 만들고 정의하고 영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 의사소통 환경,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언어 스타일, 우리의 비언어적 행위들 (nonverbal behaviors) 등은 모두 우리 문화의 반응 (response)이고 기능 (function)이다. 각 문화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의사소통과 개개인의 행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언어란 그 언어가 속한 사회 집단의 생활양식, 태도, 습관 등과 함께 학습되고, 이러한 생활 양식, 태도, 습관 등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최현욱, 1992). 즉, 언어란 그 언어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 속한 문화의 반영이요, 사회적 약속의 산물인 것으로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의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hotel'이라는 영어 단어는 한국에 들어와서 '호텔'로 그 뜻이 격상되어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낱말보다 고급 숙박 업소를 지칭하는 말로 되었으며, 수직적 상하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의 '선배' 또는 '후배'의 개념이 수평적 사회인 영어에서는 단지 'friends'의 개념으로만 통한다.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은 이질 집단의 문화 접촉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 내에 존재하는 동질문화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다음 그림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Samovar & Porter, 1994:20).

【도표 2. Mode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와 B문화는 서로 유사하지만, C문화와는 모양도 다르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다. 각각의 문화 안에는 그 문화의 성격을 지닌 개인의 모습이 담겨있는데, 그 문화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개인을 조형하는데 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 있다는 문화 내의 다양성을 설명해준다. 각각의 문화들간의 의사소통은 일련의 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문화에 다다랐을 때에는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의 정도는 A, B문화간보다는 C문화와의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위 그림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드러낸다. 낯선 문화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보낸 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상대에게 전달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언어는 그 자체의 외형만으로는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는 단순히 목표 언어의 언어적 기능의 습득에만 국한하지 말고, 목표 언어의 원어민들의 문화적인 내용까지 습득해야 언어 학습자들이 '사회적 불구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현욱, 1992).



Ⅲ. 한·영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이질 문화의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에서 오해와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의 가치관에 따른 언어 표현 즉 모국어를 사용할 때의 가치 기준으로 외국어를 말함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많다.

Dunnette et al. (1986: 148-49)은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 ① Languages cannot be translated word-for-word.
- ② The tone of speaker's voice carries meaning.
- ③ Each language-culture employs gestured and body movements which convey meaning.
- ④ We all understand that languages use different grammatical elements for describing all parts of the physical world.
- ⑤ All cultures have taboo topics.

이처럼 이질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도 의미 전달의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한, 영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점을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언어적 측면에서의 차이

언어적 측면의 차이는 문장 구조에 따른 언어 표현 방식과 어휘의 차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문장 구조와 표현 방식

Chomsky를 위시한 변형 생성 문법 학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유전적으로 결정된 언어 능력 또는 언어 기능 (genetically determined language faculty)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선천적인 언어 능력과 각 언어 환경에서의 언어 경험, 즉 매개변항이 합쳐져서 서로 다른 개별 언어의 모습이 탄생한다고 주장한다 (Chomsky, 1965).

이 주장에 따르면 한국어와 영어의 문장 구조상의 차이는 핵 (head)과 보충어 (complement)의 선후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통사 단위 (syntactic units)들인 NP, VP, AP, PP 구조는 각각 핵심이 되는 요소인 핵 (N, V, A, P)과 보충어를 가진 최대 투사 구조들이다. 영어는 핵이 보충어를 선행하는 선행 (head-initial) 구조 형태를 띠고, 한국어는 보충어가 선행하는 후핵 (head-final) 구조를 지닌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양우진, 1996:2-5).



예를 들면, “ [the [[book] [on the table]]] / [[책상 위의] [[책]]] ”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장 구조상의 차이는 사고 논리나 의사 표현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행 구조를 지니는 영어에서는 핵심사항을 먼저 말하고 부수적인 사항은 나중에 말하는 연역적인 방식을 취해 핵심내용을 강조하지

만, 후핵 구조를 지니는 한국어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미에 드러내기 때문에 말을 끝까지 듣기 전까지는 정확한 결론을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영어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 전달법과, 한국어의 간접적이고 함축적인 의사 표현 방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방문했을 때 "What's on your mind?", "Get down to business." 등 방문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전해듣기를 원하지만 (Stewart & Bennett, 1991), 한국인들은 날씨, 근황 등 목적 이외의 화제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질문에 대답을 할 때도 미국인들은 "Yes"와 "No"를 분명히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공손함의 표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언어 자체에 대답이 금방 드러나지 않아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식사할 때 미국인들은 음식을 더 권하는 주인에게 "Yes, thank you. It is delicious." 혹은 "No, thank you. I'm full."이라는 자신의 정확한 의사를 한번에 표현하지만,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사양하는 것이, 그리고 주인은 여러 차례 권유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 이러한 차이는 대인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 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Our sociolinguistic evidence reveals that in contrast to Americans' emphasis on confrontation, directness, and frankness, Koreans are rather indirect in communicative behavior. Not only in interpersonal encounters but in all manner of problem solving, Americans prefer to face the people, facts, and situations involved directly and intentionally, with a self-assertive attitude, and intentionally, with a self-assertive attitude, and get to the source of a problem (Shon, Ho-min, 1983:120)"

June Ock Yum (1994)은 Brown & Levinson의 말을 인용하여 간접적인 언어

행위 (indirect communication style)는 공손함의 전략이며 구성원들이 상대에게 주기를 원하는 자신의 이미지, 즉 체면 (face)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신의 체면과 상대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의사가 거부되거나 상대와 일치하지 않을 때의 당혹감을 피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문을 닫기를 원할 때 'The door is open.'이라 말하고, 한국인들과 일본인 등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It is somewhat cold today.'라 말함으로써 (June Ock Yum, 1994) 상대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자신의 체면을 미리 생각한다.

다음의 대화는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사 표현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과 미국 고용주간의 실제 대화 내용이다 (박명석, 1973:281).

Employer: Are you confident in performing the duties of a file clerk?

Korean: Yes, I am. I have a B.A. degree from Seoul University. My family is known to be a good one, and I have been getting whatever I want from everybody.

Employer: But, have you ever worked in a filing department in any company?

Korean: Yes, I can. I can type, drive, and have a B.A. degree from the best university in Korea.

Employer: Can you order things alphabetically?

Korean: I learned English for six years in high school and four years at college. I used to be the best student in those days.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미국인들은 간결하고 논리적이고 직접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한국인들은 부연적인 설명을 많이 하게 되어 자칫 장황하고 논리가 부족해 보이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

다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의사전달의 직접성과 간접성에 대해 알아보자 (Shon, Ho-min, 1983).

① 미국인들은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서로 직접 인사를 나누지만, 한국에서는 중간 매개자가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친구를 통하거나 혹은 회식이나 모임 등의 채널을 이용하는 "indirect-intermediated interpersonal communication"의 특징을 나타낸다.

② 미국인들은 분명한 언어적 의사 전달을 강조하지만,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부정적인 반응이나 견해는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I disagree", "I cannot agree with you."라는 표현이 미국에서는 서슴없이 사용되지만, 한국인들은 상대의 면전에서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No"라고 말하는 것을 무례하게 여겨 대신에 "글쎄요 (Well.)", "어렵겠는데요 (I think it's going to be difficult)", "두고봅시다. (Let's wait and see)", "괜찮네요 (It's OK)" 등의 표현을 쓰거나 또는 침묵을 지킨다.

③ 미국인들은 솔직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한국인들은 자신의 견해나 느낌을 개방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과묵함이 칭찬을 받는다. 미국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애정 표현을 자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한국인들은 대화 중의 오랜 침묵도 대화의 연장으로 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자신의 질문에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답을 원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로 하시겠습니까, B로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흔히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 혹은 "좋으실대

로 하시죠.”라고 대답한다 (강수언, 1988).

④ 겸손과 겸양을 나타내는 간접 의사 표현이 한국 사회에서는 최대의 미덕이지만, 영어권 문화에서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초대를 한 주인은 손님에게 “There are a lot left. Please, help yourself.”라고 말하지만, 한국의 주인은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혹은 “맛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말한다. 또한 선물을 줄 때도 한국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This is nothing good but please accept it.)”라고 말한다.

⑤ 한국어에서는 “눈치 (reading other’s face)”가 발달되어 말보다 더 많은 의사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대화를 미국인이 듣는다면 의아해 할 것이다.

사무실에서 과장이 계장에게 퇴근시간 직전에 말한다 (Shon, Ho-min, 1983:121-22).

과장: 날씨도 춥고 출출한데. (It’s cold and I’m kind of hungry.)

(함축적 의미: Why don’t you buy a drink or something to eat?)

계장: 과장님, 약주 한잔 하러 가지요. (How about a glass of liquor?)

(함축적 의미: I will buy liquor for you.)

과장: 뭘 그래. 괜찮아. (It’s OK. Don’t bother.)

(함축적 의미: I will accept your offer if you repeat it.)

계장: 시장하실텐데 나가시죠. (You must be hungry. How about going out?)

(함축적 의미: I insist upon treating going out.)

과장: 그래볼까? (Shall I do so?)

(함축적 의미: I accept.)

이러한 의사 전달의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의 차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수다스럽다고 말하고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비협조적이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한다. “입으로 망한다”는 한국의 속담은 한국인의 간접 의사 표현 방식을 잘 말해준다.

2) 어휘와 문화

McBrian (June Ock Yum, 1994에서 인용)에 따르면 언어는 사회 계층 체제의 내부 요소를 형성하며, 특히 수직적 유교 사회인 한국 사회는 상당히 계층화된 언어 코드에 의해 표현된다. 즉, 사회적 신분, 친근함의 정도, 성별, 공식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 또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특히 발달된 어휘나, 부족한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1) 호칭과 경어 표현

Martin (1964)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에서의 주요 차이점 중의 하나는 언어 수준 (speech level)에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에도 경어적인 표현이 있어 상황에 따라 언어 코드를 달리한다²⁾. 예를 들면, “like/care for”, “eat/dine”, “man/gentleman”, “give/bestow”, “Will you/Would you” 등의 어휘간의 차이가 있으나 (Shon, Ho-min, 1983), 이 어휘들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정도는 그리 많지 않으며 신분이

2) 강수언(1988:17-18)에 따르면, 경어의식의 표출의욕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며, 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존경심, 자기의 겸양, 타인에 대한 자기의 배려 등을 알리기 위하여 경어를 쓰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본능이다. 다만, 경어의식의 표출 방식에 있어서 한국어는 전후 상응하는 체계적인 언어형식에 의존하며, 영어는 형식보다는 의미내용의 전달에 역점을 둔다. 따라서 영어의 경어 표현은 호칭, 인사, 정형문구 정도이며, 사용범위도 제한되어 있고, 형태소(morpheme)가 존재하는 경우가 없다.

나 연령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주로 화자와 청자간의 친숙도에 따라 구분하여 쓰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친한 사람에게는 나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Hi!"를 사용하며, "Good morning"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윗사람에게 쓴다. 또한 가까운 사람끼리는 나이, 신분에 상관없이 보통 이름을 부르며,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Mr.', 'Ms.', 'Mrs.' 등의 간단한 호칭을 사용한다. 그리고 별로 친숙하지 않은 관계에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title + last name'의 호칭을 쓸 때에도 좀 더 편한 호칭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code switching)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언어들에서는 유교적 서열 의식이 언어에 반영되어 극존칭, 존칭, 겸양어, 비하어 등으로 구분되는 복잡한 언어 코드가 있으며, 호칭뿐만 아니라 대명사, 동사, 명사 등 모든 부분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어휘 코드를 가지고 있다 (June Ock Yum, 1994). 예를 들어, 영어에서 'to eat'은 상대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to eat'이 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먹다', '드신다', '잡수신다'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이들 동사의 형태는 또한 다른 수준의 명사 즉, '밥', '식사', '진지' 등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대명사에 있어서도, 영어의 'you'는 어린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 대통령 등 상대방과 상관없이 모두를 지칭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상대와의 나이, 신분의 차이에 따라 '어르신(귀하, 각하, 귀댁)', '댁', '당신', '자네', '너'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그러나 보통 2인칭 대명사로 호칭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신에 사회적 직함을 붙이거나 대화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교수, 숙모, 학생 등과 같은 실제적인 역할 용어들이 주로 사용된다.

호칭 체계는 그 자체의 복잡함 이외에도 접미사 '님', '씨' 등을 사용하여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 접미사 '님'은 과장/과장님, 사장/사장님, 선생/선생님, 교수/교

수님, 총장/총장님, 기사/기사님, 주부/주부님 등 직함에 붙기도 하고, 형/형님, 누나/누님, 숙모/숙모님, 아버지/아버님, 조카/조카님 등 친족 명칭에도 결합되어 사용된다. 한국어에서는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두 사람간의 서열 의식과 사회적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유교주의적 특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

(2) 한·영 어휘의 특성

어휘는 그 언어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어와 영어 어휘의 사회, 문화적 특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박형기, 1992).

첫째, 한국어 어휘는 주로 종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계통별 분화가 발달해 있는데 비해 영어의 경우는 횡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분화가 발달되어 있다.

이는 과거 혈연, 대가족 중심의 가족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한국 사회와 핵가족 중심의 미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영어의 'He is my brother.'란 문장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어휘가 없다. 영어의 'brother'와 'sister'는 연령 구별을 포함하는 '형, 제', '자, 매'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의 'aunt'와 'uncle'도 한국어에서는 상하 수직적인 관계를 중요시하여 '숙모, 이모, 고모, 아주머니', '백부, 숙부, 외숙, 아저씨' 등의 세분화된 가족 관계 어휘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의성부사가 풍부한 반면, 영어에서는 동사가 풍부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웃음소리나 울음소리 등에 관한 어휘 부문에서 현저하다.

한국어에서는 웃음이나 울음 등을 표현할 때 '웃다', '울다'라는 동사에 상황에 맞는 부사를 이용하여 구분하지만, 감정 표현이 비교적 자유롭고 솔직한 영어에서는 웃음이나 울음의 주체와 특성에 따른 다른 형태의 동사를 가지고 있다.

웃다: [사람이] (소리내어) laugh
 (미소지으며) smile
 (낄낄 소리내어) cackle
 (싱글벙글) simper
 (킬킬) chuckle
 (상긋이) grin
 (능글맞은 웃음을) smirk (시사영어사: 한영대사전)

‘울다’의 경우에도 사람이 주체인 경우 상황에 따라 ‘cry, weep, sob, whimper, blubber, moan, howl’ 등의 동사를 다르게 쓰며, 벌레나 새 - ‘sing, chirp, twitter’, 수탉, 암탉 - ‘crow, cackle’, 병아리 - ‘peep’, 사자, 범 - roar, 개 - bark, yelp, whine, howl, snarl, 고양이 - mew, purr 등의 다른 형태의 동사를 사용한다. 즉, 한국어의 경우는 정황을 설명하는 부사가 발달된 반면, 영어는 동사가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한국인과 동적인 것을 추구하는 미국인의 의식 구조의 차이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세제, 한국어는 식물, 유교 및 농경 문화에 관한 어휘를 많이 내포하고 있고, 영어는 동물, 기독교 및 목축 문화에 관한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농경 중심 사회인 한국에서는 영어의 ‘rice’에 대해 ‘쌀 (hulled rice), 밥 (steamed rice), 벼 (rice plant), 모 (rice seeding), 찰쌀 (glutinous rice), 미곡 (rice grains),’ (Park, Myung-suk, 1979) 등의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목축 문화를 바탕으로 영어에서 ‘meat, beef, flesh, pork, veal, mutton, venison’ 등의 단어는 한국어의 ‘고기’로 종합해서 쓸 수 있다.

네제, 한국어는 내성적이고 대내적이어서 가족 관계나 민속적인 것을 나타내는 어휘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영어는 개방적이고 대외적이어서 사교생활, 여행, 스포츠, 전쟁 등에 관한 어휘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여행'에 해당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journey (비교적 긴, 육상의, 기차 여행), travel (가장 넓은 의미의, 먼 곳, 장기간의, 우주의 여행), trip (짧은, 갔다가 돌아오는, 항공, 신혼 여행), excursion (유람적인, 짧은, 소풍 여행), voyage (바다 여행), tour (관광, 시찰의, 여러 곳을 순회하는 여행) 등의 어휘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이 외에도 양 언어간에 대응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어느 한쪽 언어에 대응할 수 있는 어휘가 없음으로 인해 어휘 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영어의 'sense', 'privacy', 'cafeteria', 'drugstore', 'black coffee', 'nothing', 'hardly', 'little', 'few', 'less' 등의 어휘가 한국어에는 대응어가 없다. 또한 한국어의 '눈치 (sense, reading one's face)', '맛이 쓴 (bitter)', '매운 (hot, pungent, sharp)', '멋 (relish, taste, zest, flavor, charm, elegance)', '복 (fortune, blessing, bliss, happiness)' 등의 어휘는 적절한 영어 대응어가 없다.

또한 표현에 있어서도 한·영간 다른 의미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how) 생각하십니까? : What do you think of this novel?

많은(many) 인구 : large population

작은(small) 목소리 : low voice

황소(bull)처럼 일하다. : work like a horse

시계 바늘(needle) : hand on the clock

바늘 귀(ear) : needle's eye

2. 비언어적 측면에서의 차이

전통적으로 언어의 연구는 언어 자체의 기능과 문어적인 부분에만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에 말이 없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Knapp (1972)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Nonverbal communication designates all those human responses which are not described as overtly manifested words (either spoken or written)." (이창열, 1986:350에서 인용)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똑같은 문화권에서도 대화의 30%만이 말(verbal)로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70%는 말이 아닌 비언어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지적 (Birdwhistell, 1970)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비언어적인 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Condon & Yousef, 1976).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양식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해준다. 특히 감정과 태도는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것으로 더 많이 표현된다.

언어는 학습에 의해 극복될 수 있지만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들은 미묘하고 다중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언어적인 행위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문화의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때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Because nonverbal behaviors are rarely conscious phenomena, it may be difficult for us to know exactly why we are feeling uncomfortable." (Gudykunst & Kim, 1984:149)

만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낙담해있는 사람에게 "What's wrong?"이라고 물었을 때, "Nothing, I'm fine."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의 얘기를 믿지 않을

것이다. "Let's forget this subjec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any more!"라고 화난 사람이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서 감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단어를 사용하지 하지 않고 의미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행복, 공포, 슬픔 등과 같은 보편적인 정서들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비언어적 방법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문화마다 외국인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간의 차이점들이 많다. 한 문화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일이 다른 문화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다. 다른 문화의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침묵언어(silent language)'를 배울 필요가 있다.

Anderson (1994)은 비언어적 행위를 chronemics, proxemics, kinesics, oculosics, paralanguage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³⁾

1) Chronemics

Chronemics는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비언어적 행위 중의 하나이다. 시간은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심리적, 감정적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개념을 갖는다. 친한 친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가지만,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거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과 마주앉아 있을 때는 시간은 느리게 간다.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의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Hall (1959)은 문화를 지배하는 두 가지 유형의 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3) Hinds(1984:281)는 비언어적 행위를 'kinesics', 'paralanguage', 'tactics', 'phatic behavior', 'proxemics', 'chronemics' 등으로 나누고 있다.

'doing a thing at a time'의 일원적 시간 (monochronic time)과 'doing many things at a time'을 강조하는 복합적 시간 (polychronic time)의 개념이다.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프랑스, 그리스 등의 문화에서는 P-time 유형이 나타나고, 북미유럽, 북미, 독일 등의 문화에서는 M-time 유형이 나타난다. M-time 유형은 "I" 개념이 바탕을 이루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 그리고 low context 문화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P-time 유형은 "we" 개념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high context 문화에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M-time 유형의 사회에서는 계획이 신성시되고 계획이 항상 행동보다 우선하며, 사회감정상의 시간 (socioemotional time)과 업무 지향의 시간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나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시간의 개념을 강조한다. 반면, P-time 유형의 사회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쉽게 변화하며 약속이 쉽게 깨트려질 수 있고, 사회감정상의 시간과 업무 지향적인 활동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미래보다는 현재와 과거 지향적이다.

M-time 문화에서는 시간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gain time", "spend time", "waste time," "save time" "kill time"이란 표현을 쓰며 "There is time and place for everything"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을 신중하게 분배하게 된다 (Levine & Adelman, 1982). 따라서 사전 연락 없이 들른 방문객은 주인의 개인적 시간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청된다.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미국인들은 미리 며칠, 몇 주전에 약속을 한다. 시간 감각이 발달한 M-time 유형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First come, first served."이므로 버스를 타거나 어떤 순서를 기다릴 때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 (박명석, 1973).

반면, 과거 지향적인 한국인은 시간 개념이 희박한 편이어서 "Korean time"이란

불명예스러운 단어가 생기기도 했다. 또한 사전 약속없이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별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며, 약속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몇 시 몇 분”을 정하기보다는 “몇 시쯤” 혹은 “저녁때” 등의 표현을 자주 쓴다.

다음은 한국인과 미국인의 시간 개념을 잘 보여주는 한 예이다 (Luth, 1997:6)

“Last semester in a composition class, one student wrote in his journal that Korean professors are not strict with deadlines compared to American professors. I admit that I am adamant about deadlines. If students do not have good reasons for handing in late papers, their scores are lowered. This has been difficult for some students to adjust to, but I do think deadlines are important.”

2) Proxemics

Proxemics는 문화권마다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 자신만의 고유한 공간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대화의 성격, 대화의 장소, 상대방과의 친밀도 등에 따라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데 이 간격이 유지되지 못했을 때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Forston & Larson (1968: 109)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Proxemics is defined as the study of how man communicates through structuring microspace - the distance that man consciously maintains between himself and another person while relating physically to others with whom he is interacting.”

Von Uexkull (Samovar & Porter, 1994:252에서 인용)은 공간의 개념을 ‘soap bubble world’로 설명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body bubbles’이라 불리는

것을 지나고 다니는데, 이 거품들은 개인의 공간을 정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과 같은 것이다. 공간의 범위는 개인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낯선 사람들보다는 가족들과 더 편하고 가까운 거리를 둔다. 개성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상대방과 더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

Hall (1966:128)은 공간의 유지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중산층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4가지 'distance zones'의 개념을 얻어냈다. ① 연인, 배우자, 가까운 친구 등의 사이에서는 'the intimate zone (contact to 18 inches)', ②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사람들, 안면이 있는 사람들간에는 'the personal zone (18 inches to 4 feet)', ③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직업적 교류에서는 'social zone (4 feet to 12 feet)', ④ 개인적인 대화보다는 일방적인 연설 등의 청자와 화자간의 관계에서는 'public zone (12 feet to 25 feet)'을 유지한다.

이러한 거리 개념은 활동의 유형과 개인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나이, 성별, 환경, 민족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문화에서는 공간을 좁히는 것은 아주 친근함을 나타내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심코 다른 사람과 스치게 된 경우에도 "Excuse me," "Pardon me"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개인 공간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를 잘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공간이 남에게 침범 당했을 경우에는 위협을 느껴 방어태세로 반응한다. 밀접한 신체접촉을 하는 문화권에서 보면 미국인들은 냉정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으로서 이해되기도 할 것이다.

처음으로 한국에 온 한 미국인의 공항에서의 소감을 보자 (Luth, 1997:6).

"I well remember my arrival in Korea.... The indoctrination into my new host country began immediately. Maybe it was just that the airport was especially busy that night, but trying to get through the baggage claim area was like training for a football team. I was tackled (plowed into) from all directions: bumped in the front, hit in the back, and elbowed from both sides. I really wished I had been wearing a helmet and shoulder pads. Strangely enough, I didn't see anyone around me who was built even vaguely like a football player. Mostly, I saw small, apparently mild-mannered women."

한국인의 공간 유지는 전통적인 주거문화와 긴밀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미국인과 비교했을 때 훨씬 좁은 간격을 유지한다. 한국에서 이웃하는 주택들은 바로 붙어있고, 한 가정 내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미국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들과도 일정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때나, 대화를 나눌 때도 미국인들은 일정정도의 거리를 두어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려 하고, 이 공간이 허물어졌을 때는 사생활을 침범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집단 의식이 강한 한국인들은 줄을 설 때나, 대화를 나눌 때 보다 밀착된 상태를 유지한다.

3) Kinesics

Kinesics는 침묵, 얼굴 표정, 신체 동작, 제스처, 피부 접촉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형태의 비언어적 행위보다 의사소통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의 형태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침묵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인 태도는 문화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침묵은 어둡고 부정적이고 "nothing"의 의미로서 대부분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Satoshi Ishill & Bruneau, T., 1994). 그러나 동양권의 문화에서는 적절한 침묵은 존중과 공손함의 표시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명상가들에게 침묵은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이래로 서구의 사상은 'black and white', 'good and yes', 'yes and no' 등과 같은 이중적 가치의 개념을 강조해 왔으며, 'speech and silence'도 이와 같은 이중적 사고에 의해 연구되고 가르쳐져 왔다 (Satoshi Ishill & Bruneau, T., 1994). 그러나 최근에 이에 상반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비어있는 실체 (empty absence)가 아니라 말을 창조해내고 말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침묵과 말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제스처는 의미를 전달하는 몸 동작을 말한다. 손은 의미를 전달하는 많은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That's expensive," "Come here," "Go away," "It's OK" 등의 표현을 단지 손만 가지고 문화마다 다양하게 표현한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외국인 방문객들은 금방 모든 제스처가 공통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국에서의 "OK"가 한국, 일본에서는 돈을 의미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외설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사람을 부를 때 한국에서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흔들지만 이것이 미국에서는 '잘 가라'는 표시가 되며, 미국에서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둘째손가락을 흔드는 것이 사람을 부르는 제스처이지만 한국에서는 동물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한다. 미국인들이 자주 하는 "어깨 으쓱하기" 동작은 "I don't know," "I don't care." "Too late." "It can be helped." 등의 많은 의미를 지닌다.

얼굴 표정 또한 상황이나 관계를 결정짓는 의미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전형적으로 기쁨의 표현인 미소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게 티켓을

받고 있는 여자의 미소는 어린아이에게 보내는 미소와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미소는 애정과 공손함을 나타내지만 또한 진실을 속이기도 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당황함을 드러내지 않거나 대답을 유보할 때 자주 미소를 짓는 경향이 있다. 고통이나 혐오, 불복 등은 찡그린 표정에 의해 전달되며, 놀람, 충격, 불신 등은 눈썹을 치켜올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적인 차이들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화적 스타일을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미국인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얼굴 표정을 짓는다. 미국 내에서도 어떤 종족의 사람들은 다른 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언어적 행위를 한다. 고정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책처럼 읽어내기가 쉽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4) Oculesics

Oculesics는 시선, 윙크, 눈의 움직임 등 눈과 관련된 행위들이다. 너무 과도한 시선을 주거나 아예 시선을 안주는 것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므로 시선은 "invitation to communicate (Anderson, 1994)"로 불릴 정도로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선은 친밀감이나 관심 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중요하다. 낯선 사람을 계속 응시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규칙은 없다.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끼리 건다 만났을 때 서로 시선을 주고, 미소를 보내며 심지어 "Hi."라고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그들은 금방 시선을 거두고 그들이 서로 부딪혔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대화에서 상대에게 시선을 안 보내는 것은 관심이 없고 집중을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불신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윗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눈 아래 쪽을 보는 것이 예의이다.

5) Paralanguage

Paralanguage는 목소리, 억양, 웃음소리, 울음소리 등과 같은 음성적 행위를 말한다. 목소리는 화자의 신분, 나이, 교육 정도, 출신지 등을 가늠할 수 있으며, 억양에 따라 의미 전달이 달라지고 화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yes'는 억양에 따라 "I understand.", "Go on.", "I beg your pardon." 등의 다른 의미를 지닌다. 울음소리도 슬퍼서 우는 소리, 아파서 우는 소리, 분노해서 우는 소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인들은 유교주의 사상으로 인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웃을 때나 울 때 주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미국인들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자유롭다.



IV. 한·영 가치체계의 차이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그 문화의 가치체계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Servaes (1988:58-71)는 동·서양 사회의 문화를 논의하면서 "... each culture operates out of its own logical structure Intercultural communications are only successful when these logical foundations are understood and accepted as equal by the people concerned."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동질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동양 문화는 이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서양의 문화와 비교되는데 이러한 차이점들이 이들 문화의 구성원들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Akbar Javidi & Manoochehr Javidi (1994:87-94)는 동·서양의 문화 가치 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도표 3: 동양과 서양의 가치체계의 차이】

동 양	서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 concept • Doing • Equality • Informality • Low context • High rate of self-disclosure • Acceptance of a person based on an area of common inter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 concept • Being • Inequality • Formality • High context • Low rate of self-disclosure • Acceptance of the whole person

배영자 (1981)는 한·영 문화의 특질을 macro-cultural pattern과 micro-cultural

pattern⁴⁾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는데, 그 중 macro-cultural pattern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4: 한·영 문화의 특질】

한국어	영어
• Buddhism, Confucianism	• Christianity
• Abstract way of thinking	• Scientific way of thinking
• Totalitarian	• Equalitarian
• Conformistic	• Individualistic
• Formalistic	• Pragmatic
• Emotional	• Rational
• Male-dominant	• Both sexes are equal
• Closed society	• Open society
• Manual labor disparaging	• Manual labor evaluative

본 연구에서는 한·영 가치체계를 비교함에 있어, 한국의 대학생들로부터 문화 체험 사례를 수집하여 이들 내용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문화와 비교하는 방법을 취했다. 사례 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① 조사기간: 1997학년도 1학기 중
- ② 조사대상: 제주대학교 재학생 130명
- ③ 조사방법: 첨부 양식 참조
- ④ 활용방안: 학생들의 관찰내용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이를 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시각과 비교하였다.

4) Micro-cultural 특징은 'housing', 'table manners', 'drinking habit', 'social rules and orders', 'recognition of individual difference', 'family life', 'contact with people', 'social life', 'school education', 'marriage and sex', 'names and titles', 'addressing', 'the comprehension and use of time', 'privacy', 'saving face'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사례들은 총 140여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질문 내용과 다른 대답 15건을 제외한 125건의 유의미한 사례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사례들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표 5: 한·영 문화의 비교】

구 분	건 수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35
2) 수평사회와 수직사회	29
3) 실용주의와 형식주의	26
4) 이성주의와 감성주의	19
5) 기타	16
총 계	125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문화와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반면 영어권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관찰 내용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도표 6: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구분	관찰 내용
개인주의	1. 'Our'보다는 'I' 개념이 강하다.
집단주의	2. 음식은 각각의 그릇에 덜어 먹는다. 3. Privacy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4. 개성을 중시하고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5. 이해관계가 없는 동료에게는 무관심하다. 6.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다.

1) 개인주의

서양인들은 개인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고 믿는 개인 단위의 사고 방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간에, 자신의 일은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개인주의는 신의 은총인 것처럼 칭송되어 국가적 종교 상태로까지 추앙되기도 했으며 자유, 민주, 그리고 독재에 대항하는 경제력 등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서로 간의 고립, 외로움, 이기주의, 나르시시즘 등을 양산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한 문화가 개인적인지 또는 집단주의적인지에 대한 정도는 보통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영향이다 (Andersen, 1994). 첫째,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비교적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둔다. 이는 핵가족 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보다 더 잘 웃는다. 왜냐하면, 집단지향주의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을 부차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지며, 개인의 자유가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자유롭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사회에서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강하며,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했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여 "Excuse me."란 말을 자주 한다 (사례 1). 한국에서는 발을 밟는다든지, 몸을 부딪치든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미안한 일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구의 사회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인사가 인색한 문화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Can you pass me the salt?"라는 요청은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의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의 개념이 없고, 낯선 사람이나 뒷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예의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자신이 직접 팔을 뻗어 소금을 가질 것이다.

한국인들이 영어권 문화의 사람들과 만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dutch treat' (사례 4)에 관한 것이다. 미국인들은 유아 시절부터 독립심을 훈련 받았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자율 정신이 강하다. 따라서 특별하게 초대받지 않은 이상, 식사 후에 계산은 각자가 하며 이는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또한 식사를 할 때나, 문화 생활을 즐기러 갈 때는 주변의 상황보다는 행위 자체를 즐기기를 좋아한다 (사례 2, 3)

사례 1.

내가 다니는 영어 학원의 좁은 통로에 서 있는데, 한 외국인 강사가 내 곁을 지나가며 "Excuse me!"라고 했다. 처음엔 내게 말을 걸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나와 몸을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조금 당황했다.

사례 2.

거리를 거닐다 보면 여행 차림의 외국인들이 홀로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할 때 보통 관광버스를 이용한 대규모 여행단이 되거나 또는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 3.

학교에서 점심 시간에 외국인 교수가 혼자서 점심을 먹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고,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가 거의 없는 듯이 보여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사례 4.

외국어 학원에서 시간제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외국인

강사, 한국인 강사, 직원들이 모두 회식을 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음식점을 나오는데 우리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한 미국인 강사가 자신의 먹은 음식값을 지갑에서 꺼내어 들고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2) 집단주의

집단주의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집단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집단의 분위기에 반대되는 개인의 감정 표현이 어렵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인 한국 사회는 집단적으로 일하며 가부장적 가족 단위를 지닌 수직 사회였다. 강수언 (1988)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전체에 흐르는 가족 집단적 의식, 연대 의식은 때로는 배타적 표현으로 또는 일반화시키는 표현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흔히 "We Koreans ...", "In our country"라는 집단 의식의 표현을 자주 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I am not sure what other people would say.", "Other people may think otherwise, but I ..."라는 식의 표현을 쓴다.

전통적인 가옥 구조에서부터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성향이 드러난다. 한국에서는 이웃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으며,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서양보다 훨씬 덜해서, 방을 함께 쓰는 경우도 많고 공간마다의 독자성이 크지 않다. 이는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심리를 느끼는 한국인의 동반의식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여성들끼리 손을 잡고 다니거나, 길을 가다가 낯선 아이를 귀엽다고 만지는 행위들 또한 집단의식의 경향이다 (사례 9).

한국 사회는 '우리'가 지배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이다. 음식도 개인적인 접시에 담기보다는 공동의 접시에 담아 나누어 먹으며, 이웃간에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사례 6). 이런 공동체 의식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되도록 같은 음식을 주문하는 자기 노출 회피 현상을 보인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같이 가기를 좋아하며, 행위들 자체를 좋아한다기 보다는 '우리'라는 분위기를 즐긴다. 또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잠재되어 있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사례 5).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사례 8).

사례 5.

Although the hosting of the Olympic Games presumably did much to educate Koreans on the ways of other peoples and societies, foreigners living in Korea seem to be regarded by Koreans as a different species of homo sapiens altogether. Still today, at the approach of a foreigner, most Korean children announce "miguk saram", a misnomer which parents should really make an effort to correct (최정화 & Klein, 1993).



사례 6.

There is no meal-courses. Soup and main dishes are served all at once along with side dishes. Dessert is not served automatically, but when it is, it is usually fruit of the season (Current & Choi, 1986).

사례 7.

For the payment of the meal, one person usually pays for all, and may even fight politely for the privilege. Many a good natured tussle takes place in front of the cashier as each person vies to pay the bill. Often the younger person may be expected to pay for the elder (Current & Choi, 1986).

사례 8.

My downstairs neighbor, for a time after I moved into the building, regularly rang my doorbell at the most inconvenient hours. The fact we were unable to communicate to maintain a sense of humor about this until she committed the ultimate infringement of my privacy by ringing my bell at 8:00 o'clock one Sunday morning. Having toppled into bed only a few hours earlier and in a deep, spirits-induced sleep, it took some time for me to distinguish the insistent and unrelenting ringing of the doorbell from the ringing in my head. Once roused, however, I instinctively knew who would be leaning on the bell at that hour and it was fury that propelled me out of bed to thrust open the door. Whereon, I was presented a letter which, I tersely pointed out, could have been deposited in my mailbox (최정화 & Klein, 1993).

사례 9.

We have observed that many people want to (and do) touch my baby - even many people that we do not know. In our culture, only family members and close friends are allowed to touch our children, and then it is usually a hug. The face is rarely touched excepted to be kissed. We believe that one's own body is private and, in general, should not be touched unless permission is given (제주대학교 원어민 강사).

2. 수평사회와 수직사회

두 번째 분류는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문화의 수평사회와 전통적 유교 정신이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 사회의 수직사회에 대한 비교이다.

【도표 7: 수평사회와 수직사회】

구분	관찰내용
수평사회	1. 존칭어와 호칭이 단순하다.
수직사회	2. 사제간, 부자간의 관계에 권위의식이 없다. 3.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가 심하지 않다. 4. 노동을 경시하지 않는다. 5.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

1) 수평사회

전통적으로 자유와 평등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기독교 사상이 지배적인 미국 사회는 문화의 가치 체계가 사회계약적인 평등의 바탕 위에 수평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 또한 평등주의 원리에 근거한 수평적이고 가상된 평등 관계로 통하게 된다 (Stewart & Bennett, 1991:90-94). 따라서 신분이나 지위 등의 권위가 중요시되지 않으며, 기존의 권위에 반하는 개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자유롭다.

Stewart & Bennett (1991:89-90)은 미국인들의 수평적 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lthough sociologists speak of class structure and status obligation in American society, most Americans see themselves as members of an egalitarian middle class.... in American society, social background, money, or power bestow perhaps fewer advantages than in any other major society.”

이러한 평등주의적 사고방식은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I', 'You'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으며, 상대에 따라 말을 낮추거나 높이는 규칙이 엄격하지 않다. 또한 여성 비하 경향이 있는 한국 사회와는 달리 남녀간의 성별의

차이도 별 의미가 없다.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한국 사회에서 어른들에 대한 예절은 매우 중요하고 어른들은 어느 정도의 권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야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식간에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도리가 있어 자식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걷는다는 것은 이 도리가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사례 10). 또한 어른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예의이며, 특히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른들에게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것은 사람 됨됨이의 평가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례 11).

사례 10.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고 있던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아들을 부르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아들은 여자 친구와 함께 커다란 회전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간단하게 "Hi!"라고 인사했고, 여자 친구도 "Hi!"라고 인사하고는 그게 전부였다.

사례 11.

우리 나라의 가수 그룹 중의 한 명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데 어느 날 TV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그를 방문한 아버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수직사회

Andersen (1994)은 힘 (power)과 권위 (prestige)와 부 (wealth)가 인구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몇몇 계층이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분포도에 따른 사회 분류를 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은 수직적 역할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서 겸손하고 비언어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공손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Gudykunst & Kim, 1984).

한국 사회의 전반에는 삼강오륜의 윤리를 강조하는 유교주의 사상이 깊이 배어 있어서 인간 관계가 나이, 신분, 남녀간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반영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사람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는 평등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상하 관계로 보는 차별적 인간관으로 나타나 자신보다는 상대와의 관계가 중요한 대인 관계의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에 어울리는 언어 표현의 단계가 존대말부터 하대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상사나 선배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으며, 원만한 사회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식사나 술자리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례 12). 또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재수없이 ...”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전통적 부계 중심의 사회 체제로 인해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어 교육 과정이나 결혼, 취업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사례 13).

전통적인 유교주의 사상은 생활 윤리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데, “어른 앞을 지나면 안된다.”, “식사할 때는 어른이 앉은 다음에 앉고, 어른이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표현들이 있다.

사례 12.

The duty of maintaining good relations, for example, with one's colleagues, one's boss, one's high school alumni, one's university alumni, one's "paduk" partner, et al, occupies on average perhaps four nights a week.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aid duty involves the ingestion of choice foods and imbibing of a variety of

spirits in luxurious surroundings all the while pampered by beautiful women anxious to please. Obviously, a terrible burden (최정화 & Klein, 1993).

사례 13.

I attended a memorial ceremony for a Korean co-worker whose mother had passed away. I was impressed with the food, traditional clothing, which honored this woman's life and death. I was surprised when we entered the house, though. The men, both Korean and Canadian, were told to go into another room, kneel down and pay their respects to the woman. The women, however, were told to go directly to the tables where the food was being served and were not able to pay their respects even though the memorial service was for a woman (제주대학교 원어민 강사).

3. 실용주의와 형식주의

미국에서 유학했던 한국의 교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문화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실용주의라는 조사 결과 (Shon, Ho-min, 1983)에서 알 수 있듯이 실용주의는 미국 사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도표 8: 실용주의와 형식주의】

구분	관찰 내용
실용주의	1. 편리하고 활동적인 복장을 좋아한다.
형식주의	2. 음식보다는 여흥을 중요시하는 파티문화를 지낸다. 3. 중고품 이용을 당연시한다. 4.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5. 격식을 갖춘 인사보다는 자연스러운 인사를 건넨다. 6. 동성동본과의 결혼이 허용된다.

1) 실용주의

미국 사회의 실용주의는 어떤 개념적인 세계도 실제로 응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조직화하고 이러한 세계에 사는 개인은 이론이나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명석, 1973).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과 증명을 통해 일반론을 얻어내는 귀납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사회의 가치 체계를 결정하여 주는 근본적인 요소는 이성과 합리성에 있다. 또한 개인주의 사상과 평등주의 사상으로 인해 개인의 이해와 요구가 존중되며 형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체면은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인사를 나눌 때도 간단하고 간혹 무성의하게 보이기도 하며 사회관계에서 형식성을 별로 따지지 않는다.

지위나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율이나 제약이 많지 않으며 (사례 14),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격식을 갖추기보다는 과정과 행위 자체에 중요성을 둔다 (사례 15).



사례 14.

얼마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는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대통령이 껌을 씹는 것이 보였다.

사례 15.

외국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한 외국인 강사들은 간단한 파티를 굉장히 자주 연다. 처음엔 파티라는 말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즐기는 것이었다.

2) 형식주의

한국 문화 의식의 바탕이 되고 있는 집단주의적 성격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다소 감정적이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개인의 감정보다는 인간 관계에서의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신체적, 정서적인 노출을 피한다. 소신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남의 시선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에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차리고 집안도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또한 어린이를 나무랄 때도 "남이 웃어요"라는 표현을 자주 쓰며, 외국인에게 "What do you think about ..."이란 질문은 하기를 좋아한다. 한국 사회의 지나친 교육열이나 과소비 풍조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려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

지위와 신분에 따라 주어지는 제약과 규율이 많으며 (사례 16), 이러한 가치 기준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되기 때문에 더 형식을 갖추게 된다.

사례 16.

People if they must blow their nose will turn around but generally speaking to blow your nose in front of others is regarded as bad manners. But in the western cultures, people blow their nose loudly, even at dinner or during a speech (Current & Choi, 1986).

4. 이성주의와 감정주의

영어권 문화는 공과 사의 구분을 명백히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문화는 자연, 학연, 혈연 등에 얽매인 '정'의 문화로 대표된다.

【도표 8: 이성주의와 감성주의】

구분	관찰내용
이성주의	1. 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성주의	2.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사고와 의사표현을 한다. 3. 모르는 사람과도 가벼운 인사를 한다. 4. 말을 많이 한다. 5. 인간 관계를 중요시한다.

1) 이성주의

미국 사회에서 의사 전달의 주된 정보원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에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경향이 있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을 선호한다 (사례 17).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의사표현을 좋아하며 공과 사를 분명히 한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Thank you!”, “Excuse me!”와 같은 인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동양 문화의 침묵이나 과묵함에 대해서는 솔직하지 않고 표현력이 부족하며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반성의 표시를 나타내기보다는 상대의 눈을 쳐다보며 직접 말로서 의사를 표현하기를 기대하는데 (사례 18), 그 시선의 의미는 진지하게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진실함이 깃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례 17.

’96 애틀랜타 올림픽 야구 중계 때 방송을 위해 주심의 마스크 안에 마이크를 설치했었다. 세계 여러 나라 심판들이 번갈아가며 경기를 진행했는데, 유독 미국 심판의 경우에만 불에 대한 판정 외에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얘기하며 경기를 진행시켰다.

사례 18.

우리 나라의 한 어린아이가 미국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 어느 날 이 어린이는 실수를 저질러 부모에게 꾸중을 듣게 되었는데 어린이는 부모의 꾸중에 고개를 숙였고 부모는 고개를 숙일 때마다 두 손으로 그 어린이의 얼굴을 들게 하여 눈을 쳐다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2) 감정주의

한국 문화의 의사 전달에서는 직접적인 것보다 미소, 눈짓 등 함축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며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표정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의사를 표시할 때도 추상적이고 함축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사례 19)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의바르지 못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20). 이러한 경향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정'의 문화로 이해될 수 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며, 인간적인 관계가 공과 사를 막론하고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명확하고 분석적인 태도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이며 너무 따지는 것으로 비난을 받는다.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강하게 작용하여 성숙한 토론 문화가 발달되지 못하고 토론이 자주 싸움으로 변지는 경우가 있다 (사례 21).

사례 19.

Koreans who speak at a passing level rarely admit their inability to fully understand what a native speaker has said once both are engaged in conversation. Prior to the conversation, mind you, Koreans often ask understanding for their poor English but, once the conversation has begun, comprehension becomes a matter of pride. This is especially evident when there is more than one Korean participating in the conversation.

The catalogue of standard Korean responses to English questions or comments not comprehended includes nodding, mumbling "yes" or "I see" and changing the subject. Most native speakers find this very aggravating after a while and, for the Korean side, it must be quite stressful to be party a discussion that one only partially comprehends (최정화 & Klein, 1993).

사례 20.

I was sitting in my office talking with some students who wanted to practice their spoken English. After some time, one of them said, "Mr. Smith, you're very busy so we'll be going now." I looked at my watch and gave my students the good news. "In fact, I have a lot of free time today and I can talk with you for another hour or so." I quickly something was wrong. My "good news" seemed to disconcert my students. After they sat squirming a short time, one of them told me that they had a class in about a minute! (제주대학교 원어민 강사).

사례 21.

We have observed open fighting in the office - raised voices, etc. among the office staff. This makes us very uncomfortable as we rarely show our anger in such a public way. We can be angry, but, we should stay calm and keep our voices low. We generally do not like to hear others arguing especially in a workplace situation (제주대학교 원어민 강사).

V. 문화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

Brown (1994:165)은 언어와 문화는 떼어 수 없는 중요한 관계이며, 제 2외국어의 습득은 곧 제 2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t is apparent that culture, as an ingrained set of behaviors and modes of perception, becomes highly important in the learning of a second language. A language is a part of a culture and a culture is a part of a language; the two are intricately interwoven so that one cannot separate the two without losing the significance of either language or culture. The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except for specialized, instrumental acquisition, is also the acquisition of a second culture."

이덕만 (1991)은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 외국어 학습자는 외국의 문화적 환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집중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학습자는 자기 보호적 고립감에 빠져서 외국의 문화를 거부한다든지 모국적인 것에 대한 향수에 잠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은 그 외국의 문화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지만, 수십년간에 걸친 노출을 통해서도 유창하게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Brown (1980)의 "문화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리 (culturally optimal distance)"의 4단계 개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때의 거리 개념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두 문화간의 거리가 아니라 학습자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주관적인 거리감을 말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태도가 외국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learner-centered) 경험적 문화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용어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화 과정의 설명을 통해 학습자 개인이 문화 이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들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습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 용어의 정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체험적 방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실상과 인지 (Reality and Perception)

Perception (인지)이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실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아름다움을 논하거나, 사물을 묘사할 때 등,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가르친 대로 반응한다. Perception은 단순한 의미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Perception is the internal process by which we select, evaluate, and organize stimuli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Perception is the conversion of the physical energies of our environment into meaningful experience.” (Samovar & Porter, 1994:14)

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belief, value, attitude system, world view, social organization 등이다. 어느 문화권이든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닌 보편 타당한 면들이 있지만, 무엇에 따라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문화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가 접근할 때 한국 사람의 표정과 미국 사람의 표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박명석, 1973). 두려운 공포감이나 더럽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한국 사람과 애완 동물로서 사랑을 주는 미국인이 표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문화적 perspectives (지각, 인지, 통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색깔안경 (colored glasses)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즉, 우리 모두는 문화적 안경 (cultural glasses)을 쓰고 태어나며 이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위한 여과장치 (filter)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Hunt, 1987). 우리가 우리와 같은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한 우리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판단 (judgement)이 이루어지고, 견해 (opinion)가 생성된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즉,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들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안경을 벗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관점으로 사물들을 보고 느끼기 위해서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쓸 필요가 있다.

Gudykunst and Kim (1984)은 낯선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cultural), 사회 문화적 (socio-cultural), 심리 문화적 (psycho-culture), 주변 환경적 (environmental)인 4가지의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여야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의미를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진정한 의사소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의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색깔 여과기를 이용하여 한 사물의 색깔이 이 여과기를 통과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문화에 대한 시각도 이와 마찬가지로 강조한다. 또한 한가지 도형이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2) 관찰과 판단 (Observation and Judgement)

관찰 (observation)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사실이라고 아는 것으로 개인의 감정이나 견해, 반응이 아니다. 판단 (judgement)이란 우리가 관찰한 것에 대한 반응이고 느낌이다. 적절치 못한 판단 때문에 이질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 (miscommunications)와 고정관념 (stereotypes), 편견 (prejudice) 등이 생겨날 수 있다. 우리의 관점과 견해로 이질 문화의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의사소통 당사자들 간에 마찰을 빚게 된다.

자신의 문화는 이미 몸에 깊숙이 배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나 특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소한 다른 문화권에 접하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더욱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다른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또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이 관찰인지 판단인지 파악해 봄으로써 이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Hunt, 1987).

A.

___ ① The woman on the crowded bus tried to grab the standing passenger's purse in order to steal it.

___ ② The woman on the crowded bus kindly offered to hold standing passengers purse.

___ ③ The woman on the crowded bus tugged lightly at the standing passengers.

위의 예문들에서 ①번 예문과 ③번 예문은 관찰한 내용에 대해 적은 것이지만, ②번 예문은 관찰에 자신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②번 예문에서는 짐을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상대의 의심을 사는 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객관적인 관찰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문화적 특성이 깃들여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B.

___ ① Out of respect, the young woman stood up and insisted that the older man take her seat.

___ ② The young woman stood up and offered the older man her seat.

___ ③ The young woman insultingly tried to offer the older man her seat. (This could imply she thinks he's too weak/old to stand.)

①번 예문과 ③번 예문은 관찰한 내용에 자신의 견해가 개입되어 있고 ②번 예문은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다. ①번과 ③번 문장은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가 예의바르고 존경스러운 행위라는 문화적 특성이 담긴 글이며,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실례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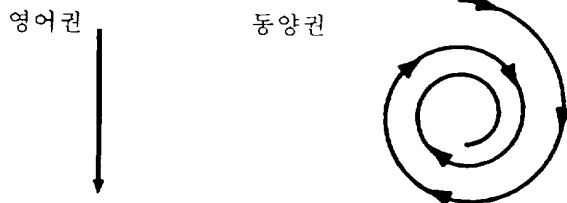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자칫 우리 문화 중심으로 사고하여 '우리 문화는 옳고 상대의 문화는 그르다'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ethnocentrism)인 사고에 젖어들 수가 있으므로, 관찰과 판단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한다.

3) High context and Low context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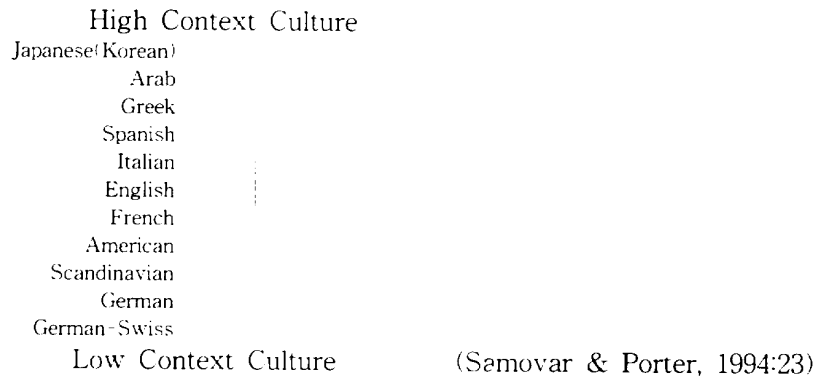
Hall (1976)에 따르면 문화는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맥락 (context)의 정도에 따라 이는 high context culture와 low context culture로 나누어 설명된다. High context 문화에서 대부분의 정보는 심리적 맥락에 달려있거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내재되어 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명확하게 전달되는 말속에는 정보가 거의 없다. 그러나 low context 문화에서는 대부분의 정보가 말속에 담겨 있고, 맥락이나 사람들 속에 내재된 정보는 거의 없다. 가장 낮은 context culture의 국가들은 북미, 스위스, 독일 등인데 이들 문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와 선형적 사고⁵⁾에 근거한 행동 체계를 지니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정확한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 반면 일본, 한국, 타이완 등과 같은 high context 문화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이나 주변에 대해 더 잘 아는 경향이 있고 주된 정보 제공은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어에는 “눈치”라는 주변의 상황을 통해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



5) Kaplan(1970)은 영어권 문화의 사고 유형과 동양권 문화의 사고 유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도표 9: High and Low Context Cultures】



이 두 가지의 문화에는 다음 네 가지의 주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 low context 문화에서는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정보를 주로 말로 전달하는 low context의 사람들은 high context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신용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말이 없고 과묵한 사람들이 매력적임을 보여준다.

셋째, high context의 사람들은 비언어적 행위와 주변 환경을 읽는데 능숙하다. 따라서 얼굴 표정, 몸 동작, 말의 높낮이, 장소 등 여러 가지 미묘한 요소가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high context의 사람들은 low context의 사람들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low context의 사람들만큼 많이 말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역할극을 통해 그 문화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하게 한다던가 사례수집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 문화간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비교, 토론하게 한다.

4) 고정관념과 편견 (Stereotype and Prejudice)

고정관념 (stereotype)이란 이질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미리 가지게 되는 믿음을 말하며 유머, 책, 영화, 방송매체 등을 통해 다양하게 형성된다. 예를 들어, 카우보이와 인디언에 관한 영화에서 카우보이는 문명화된 사람으로 나오고, 인디언들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지 이 영화만을 통해 미국의 인디언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인디언들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된 이미지만을 갖게 될 것이다. Brown (1994)은 Mark Twain의 불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The French always tangle up everything to that degree that when you start into a sentence you never know whether you are going to come out alive or not."

잘못된 고정관념은 편견 (prejudice)을 야기시켜, 다른 문화의 집단을 무시하고 중요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만든다. 이 두 용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 다음 예문에 잘 들어 있다.

"Mr. Bias is a director of small private company. He is interviewing candidates for the position of assistant manager. He selects a bright and ambitious applicant. Later, he discovers that this applicant is from the country of Levadel (a fictitious nation). Since he thinks that all Levadeians are stupid and lazy, he decides to select someone else for the position (Levine & Adelman, 1982:81-82).

"미국인들은 모두 부자이며, 격식 차리기를 싫어하고, 물질적이며 지나치게 우호적이다. 이태리인은 열정적이고, 감정적이며, 감정을 잘 보인다. 영국인은

과묵하고 점잖으며, 검소하다. 동양인은 과묵하고, 현명하고 교활하며, 수수께끼 같이 풀 수 없는 사람들이다” (Brown, 1994) 등의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듯이, 고정관념은 사람들을 고유의 인성을 지닌 개인으로 보는 것을 차단하여,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지원자의 자격보다는 민족성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이 우선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민족성이 우수하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지원자가 자격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수한 점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타파해야 될 것은 고정관념과 편견이다.

이 개념은 인터뷰를 해보게 하거나 데이터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열거하여 토론하게 한다.

2. 문화화 과정

자민족 중심주의 사상 (ethnocentrism)에 쌓여 있던 한 개인에게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고, 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앞서 각 개인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함으로써 스스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Bennett (1986)은 외국어를 배우는데는 문법, 어휘, 발음 등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intercultural sensitivity'이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수많은 'educated fool'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6개의 문화 발전 단계를 통해 그 과정을 설명하고, 각 단계마다 적절하고 유용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Bennett가 주장한 6개의 단계는 학생들이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정도이며,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일수록 더 자문화중심적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문화의 차이에 대한 부정' (denial of difference)이다. 학습자들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거의 없어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식은 하지만, 고정관념과 편견에 쌓여 "small C" 문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large C" 문화 또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무의식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또는 의도적으로 자신과 남을 분리시켜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화, 음악, 춤, 예술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

둘째, '문화의 차이에 대한 방어' (defense against difference)이다.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기는 하지만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난 또는 비방이 더욱 심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denigration'), 자신의 문화에 우월성과 긍정을 나타내는 ('superiority') 일면이 있고, 동시에 사고가 반전되어 자신의 문화를 무시하고 다른 문화를 우수하게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보편성 및 다양성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그룹활동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문화의 차이를 최소화 (minimization of difference)' 하는 단계이다. 꽤 의도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과 자문화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고 받아들인다. 생리학적 유사성 ('We are all human. '), 종교·사회철학적 유사성 ('We're all children of God.')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간과해버리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선별된 cultural informants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value와 belief 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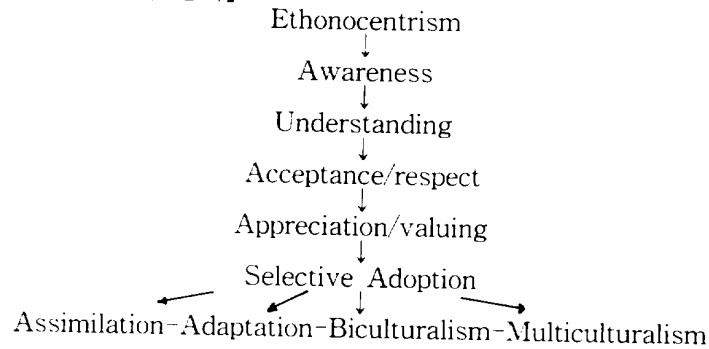
네째, '문화의 차이에 대한 수용 (acceptance of difference)'이다. 학습자들은 자민족중심주의보다는 문화적 상대주의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문화 대조를 통해 상대문화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행동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의 차이도 이해한다. 이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문화 대조가 필요하고, cross cultural empathy를 요구하는 역할극 (role play)과 게임 (simulations)이 사용되며, homestay 등의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다섯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 (adaptation to difference)'이다. 학습자들은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을 가능케 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각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상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활동들이 요구되는데 실제 상황 모의 게임 등이 사용된다.

여섯째, '문화적 차이점의 융화 (integration of difference)'이다. 다중문화의 패턴이 내재되어, 한 개인의 자아는 특정 문화에 한정된 identity에 얽매어 있지 않다. 이제 학습자는 다중문화의 frame을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단계의 학습자는 교육가로서 효과적인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을 교육할 수 있으며, 개인의 identity는 항상 유동적이고, 또다른 문화의 이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제 1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의 발전 과정이 곧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Hoopes (1979:17-22)는 문화 학습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표 10: 문화학습단계】



3. 의사소통상의 장애물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할 때 오해와 마찰이 생기는 이유를 Barna (1994:337-45)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섯 가지의 장애물들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다는 인식 (assumption of similarities)이다. 많은 사람들이 "... there are sufficient similarities among peoples of the world to make communication easy."라고 인식함으로써, 즉 단순히 모두가 인간이고,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 같으므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생물학적인 보편성 외에 사회적 필요, 가치, 신념, 태도 등이 문화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People are people."이라는 생물학적인 보편성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생활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유사성의 가설은 비언어적인 신호 또는 상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소에 대한 동양 학생들의 생각과 미국인의 생각에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서로 같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오해와 마찰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의 장애물은 언어의 차이 (language difference)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벽이다. 어휘, 통사구조, 속어, 속어, 방언 등등이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일차적인 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문화마다 "Yes", 와 "No"가 주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Won't you have some tea?"라고 영어 모국어 화자가 물어 봤을 때 한국식 사고에 바탕을 둔 한국인의 답변이 "No"라고 한다면, 이는 긍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영어 모국어 화자인 경우에는 그 언어적 의미만을 받아들임으로써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공손함의 표시로 한 두 번 정도 사양한 것이 어떤 문화에서는 끝이곧대로 받아들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의 장애물은 비언어적 해석 (nonverbal misinterpretations)이다. 이질 문화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감각적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만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인식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문화의 틀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 따라서 쉽게 관찰되고, 수없이 등장하는 제스처, 몸동작 등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 또는 상징 체계들은 자신의 문화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모르면 무한한 의사소통의 장애가 생겨난다.

네 번째의 장애물은 고정관념 (preconceptions and stereotypes)이다. 예를 들어 아랍인들은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는 경향이라든가, 낯선 사람들과도 가볍게 인사하고 미소를 짓는 미국인들은 가식적이고 표면적인 인간 관계를 선호한다는 생각 등의 고정관념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가 잘못 전해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의 장애물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려는 경향 (tendency to

evaluate)이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 의해 표현된 감정이나 사고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는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려는 경향 때문에 다른 문화를 보는 객관적인 시야를 차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낮에 낮잠을 자는 것을 즐기는 나라들에 대해서 게으르다고 비난하기 전에 그 나라의 한낮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일을 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꽤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직접적인 평가 경향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객관적인 시각을 차단하게 되어 공정하고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준다. 특히, 한 문화 내에서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평가 경향으로 인해 종교, 정치 등의 문제에서 자주 장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섯 번째의 장애물은 긴장, 또는 걱정 (tension or high anxiety)이다. 이질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긴장과 걱정 또는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난다. 적절한 긴장과 긍정적인 태도는 활력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준비 자세가 되지만, 긴장과 걱정이 너무 앞서고 많으면 종종 후퇴 심리, 적대감 등으로 나타나는 방어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특히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경계 태세를 지니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문화적 피로 (culture fatigue) 즉, 문화적 충격 (culture shock)을 받게 된다.

4. 경험적 접근 방법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능력 향상을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보자 (MacGregor, 1995).

① 학습자들 고유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행동에 대한 문화의 영향을 고찰한다.

② 다른 문화의 입장에 처해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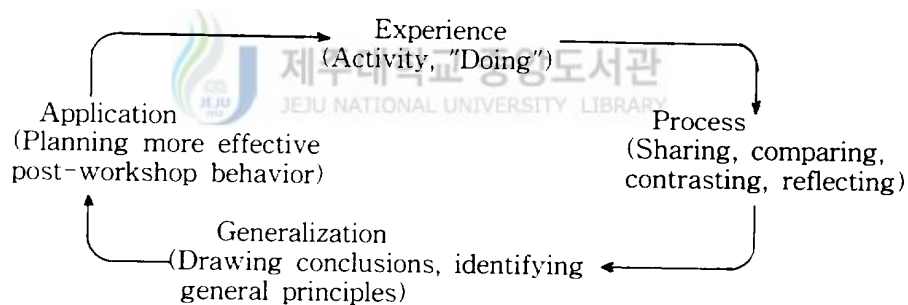
③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여 유사점, 차이점을 찾고, 이해를 도모한다.

④ 행위, 태도, 가치관 등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심을 기른다.

McCaffery (1993:231-35)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방법⁶⁾은 학습자들을 활동에 직접 참가하게 해서 활동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게 하고, 그 분석으로부터 유용한 통찰을 도출해내며 그 결과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경험적 접근 (experiential approach) 방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표 11: 경험적 접근학습 과정】



6) Experiential training is exactly what the name implies - learning from experience. The experiential approach is learner-centered... Effective training strategies which incorporate experiential learning provide opportunities for a person to engage in an activity, analyze this activity critically, abstract some useful insight from the analysis, and apply the result in a practical situation. (McCaffery, 1993:231)

학습의 출발점은 '경험 (experience)'적 측면에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doing something'을 통해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case studies, role plays, simulations, games, lecturattes, films and slide shows, skill practice, completing an educational instrument, living with a family from another country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이 활동들은 수동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 living with a family from another country - 까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 다음은 '처리 (process)' 과정으로 초기 단계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고찰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그들의 반응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개개인의 느낌과 인식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각각의 반응에 나타나는 유형들을 개념화하게 된다. 이 과정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상대의 문화에 대해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단계를 거쳐 '일반화 (generalization)' 과정에 이르면, 다시 처음 단계의 경험 내용들을 되돌아보는 작업을 거쳐 경험한 내용들을 일반화시키고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학습자 스스로 사고하고 결론을 이끌어낸 후 다른 학습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비교,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What did you learn from all this?", "What more general meaning does this have for you?" 등과 같은 질문들이 결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 '적용 (application)'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얻어진 내용들을 work shop 등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해 봄으로써 미래에 좀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한국인 유학생의 경험을 사례 연구

(case studies)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When I call on my American friend, he said through window, "I'm sorry. I have no time because of my study." Then he shut the window. I couldn't understand through my cultural background. House owner should have welcome whether he likes or not and whether he is busy or not. Also the owner never speaks without opening his door (Barna, 1994:339).

문화의 간접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은 '미국인들은 너무 개인적이고 인정이 없다.' 또는 '미국인들은 예의가 없다.'는 등의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학습자들의 이런 느낌은 분석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In Korea, it is possible to visit other people's houses without previous notice. In America, it is impolite to pay a surprise visit to other people's houses."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 결론은 마지막 '적용' 단계를 통해서 한국적인 상황과 미국적인 상황으로 나누어 연극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경험적 접근 방법의 특징은 학습자 개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일반화된 내용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는 것이다. 특히, 'to reflect on their experience, draw conclusions, and identify applications' 과정을 위해서 학습자의 독립적인 학습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 또한 효과적으로 각각의 단계를 유도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험적 접근 방법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경험' 단계에서의 문화 관찰 내용이며, 이를 위한 여러 활동들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1) 사례 연구 (Case Studies)

사례 연구는 가능한 한 실제와 가장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된 사례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폭넓고 다양한 문화 인식을 할 수 있다. 사례 연구의 이점은 제시된 사례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잠재된 가능한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Hoopes & Pusch (1979b)에 따르면, 사례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실질적인 사건보다는 태도, 감정, 편견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① 제시된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② 관련된 인물들의 관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오해와 영향 등에 대해 진지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그와 유사한 실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사례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It is a description of a specific situation, as near to reality as analogy permits (with names changed to protect the innocent.)
- ② The focus is on experience, therefore an actual situations where action/decisions can be made.
- ③ The discussion centers on an actual, multi-faceted situation.
- ④ As much as possible, case studies emphasize the particular rather than the general.
- ⑤ The participants should feel that they have had the experience that the case study describes.

-
- ⑥ The case study must be interesting.
 - ⑦ The decision-making is done by the individual reader or the group. There are no observers or spectators.
 - ⑧ The decision-making process itself can be dissected and analyzed as the group moves toward solutions.
 - ⑨ Ideally, the case study method, when used well, gets the participant in the habit of making decisions.
 - ⑩ If a time-frame is established, decision-making includes use of time. We have to decide, and "not to decide is to decide."
 - ⑪ To make good decisions, all the factual material in the case study should be used.
 - ⑫ Case studies are best when they come as close to reality as possible; therefore, they should reflect day-to-day and run-of-the mill decision-making with opportunity for differences of opinion. Resolving those differences of opinion into consensus, or majority-minority decisions, is part of the task. (Hoopes & Pusch, 1979b:190-91)

다음은 동양과 서양의 미소, 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행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사례 연구의 한 예이다 (Zanger, 1985:4-5).

【도표 12: Case Study 사례】

Vu Nguyen was a Vietnamese student studying English in the United States. He often visited his local public library to read the magazines and newspapers there. One day He found a book he wanted to read at home. So he asked the librarian, "Excuse me, may I borrow this book?"

The librarian answered, "Why, of course. Just give me your card."

Vu smiled at her and nodded his head politely. He wanted to show he was listening.

The librarian kept talking. "That book is wonderful. Isn't that author great?"

Vu had never read anything by the author. But he smiled and nodded again to show his interest. Finally, he said, "I would like to borrow this book today. Could you please tell me how to apply for a library card?"

The librarian looked confused. "Oh! I thought you said you already had one. I'll give you a temporary card for today. We'll send you your regular card in the mail. It will be about two weeks. Come right this way to fill out the application." The librarian held out her hand, palm up, moving only her index finger to get Vu to follow her.

Now Vu was confused. He did not understand why the librarian had suddenly become so rude.

Vu smiled to cover up his confusion. As the librarian gave Vu the application, she said to him, "You look so happy. You must be glad about your new library card."

Questions.

1. Do you think Vu was happy? Why did the librarian think so?
2. Underline all the words in the case study which describe gestures made by the librarian and by Vu.
3. Why did Vu nod his head?
4. What did the librarian think Vu meant when he nodded his head?
5. Why did Vu think the librarian was rude?

2) 영화 상영 (Films)

영화는 대부분 한 사회의 문화의 단면을 담고 있으므로 흥미있고 손쉽게 문화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토론에 유용한 질문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 ① What is the theme or moral in this film for you? Is it universal?
- ② If the setting of this film was your cultural environment, how similar/different would events and personal relationships have been that to those in the film?
- ③ If the film involved resolution of a problem, what are other alternatives to the course of action taken in this film?
- ④ With which character do you identify the most? Why?
- ⑤ How real was this film for you? How does it relate directly to any experiences you have had?
- ⑥ What feelings did you experience during the film? When did these occur, and why?
- ⑦ What does this film suggest to you about behaviors, thoughts, feelings to strive for or avoid when communication with someone from another culture?
- ⑧ What values lay behind the main character's actions in the film? If someone from your country was in a similar situation, would the same values be in operation? If so, would the same behaviors follow from such values? (Hoopes & Pusch, 1979b:201)

홍콩 영화인 "The Joy Luck Club"은 중국계 미국인 딸과 그들의 중국인 어머니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문화의 차이가 의사소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에서의 갈등은 문화적 차이가 국가간 경계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가정에서 또한 나타남을 보여준다. 더욱이 영화를 통해 학습자들은 중국과 우리 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동질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충분히 학습자들을 자극할만한 것이며,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나야만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이 분야에서 적극 추천되고 있는 영화들은 *Chairy Tale*, *Differences*, *Eye of the Beholder*, *Eye of the Storm*, *Four Families*, *Majority Minority*, *Neighbors*, *Walls and Walls*, *Where is Prejudice* 등이다 (Pusch, 1979).

3) 게임 (Simulations)

게임은 가장 강력하고 흥미있는 경험적 학습 도구 중의 하나이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적 충격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 문화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임 중의 하나는 "BaFa BaFa" 게임이다 (MacGregor, 1995).

학생들을 두 그룹, 즉 알파 (Alpha) 문화와 베타 (Beta) 문화로 나누는데 각각의 문화는 그들만의 고유한 사회적 규칙을 가지고 있다. 알파문화는 따뜻하고 친절하며 구성원간의 강한 결집을 가진 사회 (relation-orientation society)이다. 반면 베타문화는 낯선 언어를 말하고 업무지향주의적인 사회 (task-orientation society)이다. 베타 문화의 사람들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국적인 언어를 말한다. 배우고 사용하기가 쉽지만 그 사용 규칙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알파 문화는 제스처와 얼굴 표정과 지시 언어 (sign language)만을 사용하여 쉽게 의사소통을 한다. 참가자들은 각각 그들의 문화의 규칙과 관습, 가치 등을 배우고 난 후에 서로 다른 문화를 방문하여 그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한다. 방문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에서의 패턴으로 의사소통하려고 애쓰지만 전혀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방문객은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고 낯선 문화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방문객이 되돌아 올 때는 당황스럽던 모습이 그 문화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된다. "They're strange, real strange, that's all I can say. They're making funny sounds and weird gestures. Just be careful when you go over there."

다른 문화를 방문한 후에 그 문화에서 관찰한 것들 - 주로 'interrelationship of language and culture, friendship, competition, alienation, task orientation vs. relationship orientation'-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타문화를 무시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발견하게 되고, 학습자들이 자기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그 문화의 관습과 규칙을 알게되면 낯선 문화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들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적대감에서 이해로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게임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문화적인 배경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며, 타문화를 인식하는 태도를 갖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다.

4) 역할극 (Role play)

역할극은 학습에의 동기 부여를 제공해줄 수 있는 다소 덜 복잡한 학습 방법이다. 역할극은 이질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10분-15분 정도의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직접 수행함으로써 역할극의 참가자는 물론 지켜보는 관객들에게도 유용한 문화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때 참가자들의 역할은 문화적 논리성을 띠는 것이어야 하며 명확하고, 보편적인 문화 특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그 역할들은 갈등 구조의 결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역할극에 참가자 두 세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객들에게는 사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주고 다음 내용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게 한다.

- ① Sources of conflict between the character
- ② Differences in motivation, approach and perspective
- ③ Kinds of feelings exhibited
- ④ Types of non-verbal communication
- ⑤ The influence of real or pretended culture in the encounter

(Hoopes & Pusch, 1979b:181)

역할극 후에 이루어지는 토론에서 관객들은 그들이 본 내용과 그들이 느낀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참가자들은 그들이 역할극을 하는 동안 무엇을 느꼈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토론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적 행위나 태도 등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게 된다. 가능하다면 이를 녹화하여 다시 봄으로써 더욱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Huges (Valdes, 1986:162-69에서 인용)는 문화학습방법으로 "culture assimilator, culture capsule, audiomotor unit (TPR), newspapers, projected media, the culture island" 등을 소개하고 있다⁷⁾.



7) 이 학습방법들에 대해서는 박상옥(1982:33-59)과 Seelye(1985:162-86)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VI. 결 론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Seelye (1974)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Chaffee (Hunt, 1987에서 인용)는 효율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자신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다른 사람의 세계를 보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나의 문화만이 전적으로 옳고 상대의 문화가 전적으로 옳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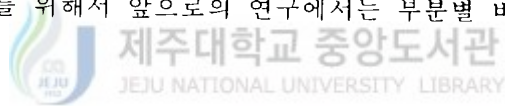
Otto Jespersen (1956)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최상의 목적은 외국의 우수한 사상과 제도, 문학과 문화에 접근하는 것 - 요컨대 가장 넓은 뜻으로는 그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문화를 부인하는 단계에서 그 문화를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적절한 학습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몸소 경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람들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와 다른 문화를 비난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칫 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의사소통의 배경에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교류가 많아지고 생활권이 점차 세계로 확대되는 세계화 시대에서 진정한 국제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졌던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우선 문화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III장에서는 한·영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IV장에서는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의 근간이 되는 한·영 가치체계의 차이를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 관찰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하였으며, V장에서는 문화학습에 중요한 용어들을 정리하고, 학습자들의 문화 인식 단계를 설명하였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을 파악하여 이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경험적 측면의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와 영어간의 비교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한국적인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룬 예는 그리 많지 않다. 한·영간의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분별 비교 연구를 심도있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수연 (1988) 『韓國語와 英語의 比較研究』 서울: 한신문화사
- 박명석 (1973) 『東 과 西-그 의식구조의 차이』 서울: 탐구당
- 박상옥 (1982) “문화교육의 의의와 방법” 《영어교육 23호》 서울: 한국영어교육학회, 33-47
- 박형기 (1992) “한·영 양어 어휘의 의의적 측면의 대조 연구” 《외국어교육, 창간호》 한국교원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1-15
- 배영자 (1981) “A Cultural Syllabus For Korean Students.” 《영어교육 22호》 서울: 한국영어교육학회, 43-61
- 시사영어사 (1993) 『엘리트한영대사전』 서울: 시사영어사
- 양우진 (1996) 『GB이론』 서울: 한신문화사
- 이덕만 (1991) “언어학습에서 문화적 요인의 제문제”
《외국문화연구》 조선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 이영자 (1990) “Communicative English Education.” 《영어교육 40호》 서울: 한국영어교육학회, 115-37
- 이창수 (1996) “이중언어 사용자로서의 통역사의 의사소통능력” 《논문집 제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33-51
- 이창열 (1986) “Teaching Gesture in Foreign Language Classroom As a Communicative Device: Nonverbal Behavior” 《영어영문학 연구 No.28》 한국영어영문학회 충청지부
- 이홍수 (1980)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연구” 《영어영문학 No.76》 서울: 한국영어영문학회, 123-38

- 최수영 (1992) “한국어의 2중구조 의식구조와 음양설: 철학적 패러다임과 교재분석” 《외국어교육 창간호》 한국교원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105-23
- 최용제 (1982) 『외국어 학습의 원리』 서울: 고려원
- 최정화 & Klein, E. A. (1993) 『우물안 개구리의 처음 한동안』 서울: 신문사
- 최현욱 (1992) 『영어교육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황적륜 (1993) “언어와 문화: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사대논총 46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61-77
- 황식모 (1985) “의사전달 교수요목에 관한 소고” 《영어영문학 3집》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연구실, 233-51
- Andersen, P. (1994) “Explaining Intercultural Differences in Nonverbal Communication” In Samovar, L.A. & Porter, R.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7th ed.) California: Wordsworth, Inc., 229-39
- Akbar Javidi & Manoochehr Javidi (1994) “Cross-cultural Analysis of Interpersonal Bonding: A Look at East and West.” In Samovar, L.A. & Porter, R.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7th ed.) California: Wordsworth, Inc., 87-94
- Barnar, L. M. (1994) “Stumbling Block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Samovar, L.A. & Porter, R.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7th ed.) California: Wordsworth, Inc., 337-46
- Bennett, J. M. (1986)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Cross-Cultural Sensitivity.” In Paige, R. M.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ed) Maine:

- Intercultural Press, Inc.
- Birdwhistell, R. L. (1970) *Kinesics and Contex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rown, H. D. (1994)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 Teaching*.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Regents
- _____. (1980) "The Optimal Distance Model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14(2)
- Chomsky, N. (1965) *Aspect of the Theory of Syntax*.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Collier, M. J. & Thomas, M. (1988) "Cultural Identity: An Interpretive Perspective." In Kim, Y. Y & Gudykunst, W. (ed) *Theor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alifornia: Sage Pub, 99-122
- Condon, J. C. & Yousef, F. S (1976) *An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Company
- Current, M. E. & Choi, Dong-ho (1986) *Looking at Each Other*. Seoul: Seoul International Publishing House
- Datesman, M. K. & Crandall, J. & Kearny, E. N. (1997) *The American Wa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Doty, G. & Ross, J. (1981) *Language and Life in the USA*. (4th ed.) vol. II. New York: Harper & Row Pub.
- Dunnett, S. C. (1986) "English Language Teaching from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In Valdes, J. M. *Culture Bound*. (7th ed.) New York: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48-61

- Finocchiaro, M. (1989) *English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4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Forston, R. & Larson, C. (1968) "The Dynamics of space. An experimental study in proxemic behavior among Latin Americans and North Americans." *Journal of Communication*, 18, 109-16
- Gudykunst, W. B. (1983) *Intercltural Communication Theory*. Sage Publications
- Gudykunst, W. B & Kim, Y. Y. (1984) *Communicating with Strangers: An Approach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Hall, E. T. (1959)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 _____. (1966)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 _____. (1976) *Beyond Culture*. New York: Anchor Press
- Hart II, W. B. (1996) "A Brief History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paper presented at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San Diego
- Hinds, J. (1984) *Nonverbal Modalities of Communication in Human Language and Culture*. Seoul: Hyung-seul Publisher
- Hoopes, D. S. (1979)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ncepts and the psychology of Intercultural Experience" In Pusch, M.D. (ed) *Multicultural Education: A Cross Cultural training Approach*. Maine: Intercultural Press, Inc., 10-38

-
- Hoopes, D. S. & Pusch, M. D (1979a) "Definition of Terms." In Pusch, M.D. (ed) *Multicultural Education: A Cross Cultural training Approach* Maine: Intercultural Press, Inc., 2-8
- _____ (1979b) "Teaching Strategies: The methods and Techniques of Cross-cultural Training." In Pusch, M.D. (ed) *Multicultural Education: A Cross Cultural training Approach* Maine: Intercultural Press, Inc., 104-204
- Hunt, P. E. (1987) "Enhanc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rough Cross-cultural Awareness Workshops" A paper presented at TESOL, Miami, Florida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 June Ock Yum (1994) "The Impact of Confucian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Samovar, L.A. & Porter, R.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7th ed.) California: Wordsworth, Inc., 75-86
- Jespersen, O. (1956) *How to Teach Foreign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Kaplan, R. B. (1970) "Cultural Thought Patterns in Intercultural Education." *Language Learning*, 16, Vols. 1& 2, 1-20
- Laurel, L. L. (1997) "Cultural Shake-down" *Foreign Language Institute Newsletter* Cheju National University
- Leeds-Hurwitz, W. L. (1990) "Notes in the History of Intercultural

- Communication: The Foreign Service Institute and Mandate for Intercultural Training." *Quarterly Journal of Speech* 76
- Levine, D. R. & Adelman M. B. (1982) *Beyond Languag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Levine, D. R. & Baxter, J. & McNulty, P. (1987) *The Culture Puzzle*. New Jersey: Prentice Hall Regent
- MacGregor, L. (1995) "A Syllabus for Teach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 Korea TESOL Journal*. Vol. 3, No. 2, July 1995.
- Martin, S. E. (1964) "Speech Levels in Japan & Korea." In Hymes, D. (ed)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 McCaffery, J. A. "Independent Effectiveness and Unintended Outcomes of Cross-cultural Orientation and Training." In Pusch, M.D. (ed) *Multicultural Education: A Cross Cultural training Approach*. Maine: Intercultural Press, Inc., 219-40
- Paige, R. M. (1993) *Education for the Intercultrual Experience*. (ed) Maine: Intercultural Press, Inc.
- Park, Myung-Seok (1979) *Communication Styles In Two Different Cultures: Korean And American*. Seoul: Han Shin Pub.
- Pusch, M. D. (1979) *Multicultural Education: A Cross Cultural training Approach*. (ed) Maine: Intercultural Press, Inc.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toshi Ishill & Bruneau, T. (1994) "Silence and Silences in Cross-cultural

- Perspectiv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Samovar, L.A. & Porter, R.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7th ed.) California: Wordsworth, Inc.
- Samovar, L. A. & Porter, R. E. (1994)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7th ed.) California: Wordsworth, Inc.
- Seelye, H. N. (1985) *Teaching Culture*. Illinois: National Textbook Company
- Servaes, j. (1988) "Cultural Identity in East and West."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1, 58-71
- Shon, Ho-min (1983)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Cognitive Values: Americans and Koreans" *Language and Linguistics*. Language Research Institut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Stewart, E. C. & Bennett, M. J. (1991) *American Cultural patter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Rev. ed) Maine: Intercultural Press
- Tyacke, M. et al. (1980) "Reading, Listening, Talking, and Writing: A Communicative Approach" *TESL II*. (winter), 60
- Valdes, J. M. (1995) *Culture Bound*. (7th ed.) New York: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Zanger, V. V. (1985) *Face to Face*. Massachusettes: Newbury House Publisher

Abstract

How to Impro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Bu Hyang-soon
Dept. of English Lang. & Lit.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Advisor: Prof. Byun Myung-Sup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o impro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Koreans and native English speakers. When we contact people of other cultural backgrounds, we often encounter a communication gap - misunderstandings and conflicts. Therefore, complete communication requires cross-cultural knowledge as well as linguistic competence.

In chapter II, the definitions of culture are discuss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communication is explained.

Chapter III deals with th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patterns - verbal and nonverbal - between Koreans and native English speakers. Even though language i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on,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other symbols such as chronemics, proxemics, kinesics, oculusics, and paralanguage are essential factors in communication.

Chapter IV describes the differences in value system between the two cultures. The differences are classified by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Egalitarianism vs. Hierarchism, Pragmatism vs. Formalism, and Rationalism vs. Emotionalism from the collected cases which were conducted by sampling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cultural point of views to others and English native speakers' to Korean.

Chapter V suggests several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based upon an experiential approach: case study, role play, simulation, film, and so on.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asic terms of the area such as monochronic time culture vs. polychronic time culture, high context culture vs. low context culture, and stereotype vs. prejudice and to recognize the six stumbling blocks which occur 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In conclusion,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effectively, we must understand their socio-cultural backgrounds as well as linguistic knowledge, because language and culture are intricately interwoven so that one cannot separate the two without losing the significance of either language or culture. In addition, to be a good communicator, we have to recognize the value of other cultures as well as our own culture, and be open to new ideas and experiences.

부록

<Making Observations and Explaining Your Own Cultural Point of View>

Think of two behaviors of someone from another culture that you observed recently that seemed strange or unfamiliar to you. (The behavior can be from a book or a movie if you can't think of a firsthand experience.) Describe or write about what you observed and explain your own cultural point of view, using the phrases listed above.

For example:

What you observed: Yesterday when the dry cleaning man came by my apartment at 7:00 a.m., he repeatedly rang the doorbell with no pauses in between. I was on the telephone long distance to America and had to interrupt my call in order to answer the door. He rang the doorbell eight times in the minutes before I could get there.

Your own cultural point of view: In American culture, early morning is considered personal time, not business time, and strangers/vendors generally do not interrupt or make noise during personal hours. At any time of day, however, in American culture, it is considered rude to ring a doorbell repeatedly. In my culture, a person ringing the doorbell without an appointment needs to consider that the resident may or may not want to answer the door. If you hear voices inside and don't get an answer, we may assume that the resident is busy and/or doesn't want to answer the door. In such cases, we have quietly so as not to invade their privacy. In American culture, it is considered extremely rude for someone to repeatedly ring a doorbell (or honk a horn) unless there is a serious emergency.

What You Observed:

Your Own Cultural Point of View
